

[25 (3월)교육청 8번]

1. 8.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갑: 군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으로 다스려야 한다. 만약 군주가 이익을 밝히면 선비와 백성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된다.

을: 무명(無明)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밝음[明]을 일으킨다면, 무명이 소멸되고 행(行)이 소멸된다. 결국에는 생로병사와 근심·슬픔·번민까지 모두 소멸된다.

— < 보 기 > —

ㄱ. 갑: 인간은 본성이 선하나 사욕(私欲)을 따르기도 한다.
 ㄴ. 갑: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군주의 책무가 아니다.
 ▶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군주의 책무이다.
 ㄷ. 을: 누구나 계정혜(敬定慧)를 닦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ㄹ. 갑과 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은 도(道)에 어긋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년(6월)평가원 4번]

2.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

갑: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君子)답지 않은가?

을: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道)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어서 하지 아니함에 이른다. 하지 않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

- ① 갑: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면 서로 차별 없이 사랑[兼愛]해야 한다.
- ② 갑: 이익[利]이 의로움[義]에 부합하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스스로 그러한 도를 따름으로써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 ④ 을: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모습은 도에 가깝다.
- ⑤ 갑과 을: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펴 예(禮)를 완성해야 한다.

[25년(7월)교육청 7번]

3.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갑: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놓아둔 채 따르지 않으며,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을 줄 모르니 애처롭다. 군자가 남들과 다른 까닭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성인(聖人)이 다스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비워지고 배는 든든하게 되며, 뜻은 약하게 되고 뼈는 튼튼하게 된다. 억지로 함이 없으면[無爲]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 ① 갑: 사욕을 극복하여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보존해야 한다.
- ② 갑: 정치는 이로움[利]보다 의로움[義]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 ③ 을: 인위에서 벗어난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 예법을 따라야 한다.
- ④ 을: 도(道)의 관점에서 마음을 비우고 다툼을 지양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성인이 되기 위해 도와 덕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26년(9월)평가원 3번]

4.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4)

갑: 큰 도(道)가 사라지니 인의(仁義)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있게 된다.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지만 되지 못함이 없어서, 이를 지키면 만물은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 뛰어난 선비는 그 도에 따른다.

을: 인간은 본성이 선하고 천하에는 도가 있다. 그러나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르침이 없다면 백성은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성인(聖人)은 이를 걱정하여 인륜(人倫)을 백성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였다.

- ① 갑: 오륜(五倫)의 도를 행하여 도덕 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
- ② 갑: 삶의 고통을 끊기 위해 연기(緣起)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 ③ 을: 무위(無爲)의 도에 따라 지혜를 버리고 덕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을: 본성을 함양하고[養性] 인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齊物] 바라보아야 한다.

[25년(10월)교육청 2번]

5. 2.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갑: 나무가 가득했던 산이 벌목으로 민둥산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양심을 놓아 잃어버렸을 뿐이다.

을: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다. 아무도 벌목하지 않으니 그 곁을 유유자적하게 거닐면[逍遙] 된다.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의 구별이 없다.

- ① 갑: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어도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 ② 갑: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베풀어야 인의를 회복할 수 있다.
- ③ 을: 인위에 얽매이지 않아야 정신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 ④ 을: 감각으로 인식한 도를 따를 때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지식을 쌓아서 시비(是非)를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26 수능 14번]

6. 14.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3점]



◦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누려서는 안 된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인(仁)을 버리고 어찌 군자라 이름할 수 있겠는가?

◦ 백성을 법과 제도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 덕으로 이끌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

- ① 군자는 의로움[義]보다 이로움[利]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 ② 빈천을 벗어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없다.
- ③ 인은 군자의 내면적인 덕목이므로 다스림의 근본이 될 수 없다.
- ④ 욕망을 극복하고[克己]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인과 예에 어긋난다.
- ⑤ 백성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26년(3월)교육청 19번]

7. 9. 다음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인(仁)하지 못한 사람은 곤궁한 처지에도 안락한 처지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인한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깁니다. 효도와 공경을 실천하고 인한 사람을 가까이해야 합니다.</p>	<p>인을 끊고 의(義)를 버리면 백성은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질 것입니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은 늘어날 것입니다. 도(道)를 따르면 날마다 덜어 내 무위(無爲)에 이르니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p>
 <p>갑</p>	 <p>을</p>

- ① 갑: 군자는 의로운 것을 볼 때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 ② 갑: 인의 실현을 위해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을: 예법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면 도를 체득할 수 있게 된다.
- ④ 을: 무위의 도를 따르면 소박한 자연적 본성이 극복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효를 실천함으로써 인간다움[仁]을 이루어야 한다.

1)

정답 2

8. [출제 의도] 맹자와 석가모니의 사사적 입장을 비교한다.
같은 맹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으나 인간은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기도 한다고 보았다.

2)

1. 유교 윤리와 도가 윤리 비교

정답 해설 : 같은 유교 사상가 공자, 을은 도가 사상가 노자이다. ④ 노자는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도(道)에 가장 가까운 것이며,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이 무위자연의 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공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兼愛)가 아니라 존비친소를 구분하여 서로사랑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② 공자는 의로움[義]에 부합하는 이익[利]은 추구해도 된다고 보았다.
- ③ 노자는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러한 도를 따르는 삶을 지향하였다.
- ⑤ 노자가 아니라 공자만의 입장이다.

3)

7. [출제의도] 맹자와 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정답 ③
같은 맹자, 을은 노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통치자는 이로움[利]보다 의로움[義]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에 있다고 보았으며,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道)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3. 맹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같은 노자, 을은 맹자이다. 맹자는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함양하며 삶 속에서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맹자의 입장이다. ② 석가모니의 입장이다. ③ 노자의 입장이다. ⑤ 장자의 입장이다.

5)

2. [출제의도] 맹자와 장자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한다. [정답] ③
같은 맹자, 을은 장자이다. 장자는 인위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을 때 모든 차별이 소멸된 정신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14. 공자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군자는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여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공자는 빈천에 처한 사람도 부귀를 누리는 사람도 인(仁)을 실현하여 군자가 될수 있다고 보았다.
- ③ 공자는 인은 군자의 내면적 덕목이면서 동시에 다스림의 근본이 된다고 보고, 통치자가 먼저 덕을 갖추고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공자는 욕망을 극복하고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인과 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⑤ 공자는 백성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형벌로 다스리기에 앞서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7)

19. [출제의도] 공자와 노자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한다. [정답 ②]
같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존비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